

'근대문화유산 빛의 거리를 걷다'

'2024 군산문화유산야행' 개최... 16~17일·23~24일 원도심 일원서

8야(夜) 테마로 문화유산 탐방·전시·공연·체험 등 50개 프로그램 운영

"여름밤, 걸어서 문화유산 속으로"
오는 8월 16~17일과 8월 23일~24일(4일간) 여름밤 군산 문화유산 밀집구역에서 '2024 군산문화유산야행'이 화려한 막을 연다. '야행'의 모든 행사는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진행된다.



한진 △근대 문화유산이 그려진 대형 현수막에 마음껏 색칠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내가 색칠하는 근대문화유산' 등이 선보인다.

16일 추진되는 개막행사는 군산대학교와 호원대학교 학생들이 무대를 꾸민다. 밤 7시 30분부터 8시까지 차량 등록사업소~군산근대역사박물관까지 뮤지컬 '영웅'의 '누가 죄인인가', '단지동맹' 등 거리 공연과 밤 8시부터 뮤지컬 갈라쇼 공연과 레이저쇼가 펼쳐질 예정이다.

군산시 국가유산 해설사들이 문화유산을 풍부한 지식과 유쾌한 해설로 알려주는 '근대路 거닐다'는 두 가지 주제의 코스로 관광객을 맞는다.

첫 번째 코스는 주거시설과 관련된 국가유산 코스인 '가로(家路) 거닐다'로 (구) 남조선 전기주식회사 - (구) 조선운송주식회사 사택 - 말랭이마을(추억의 전사관) - 군산 신용동일본식가옥으로 이어진다.

다음으로 일제의 쌀 수탈과 관련된 두 번째 국가유산 탐방코스인 '시로(視路) 거닐다'는 부잔교 - (구) 조선은행군산지점 - (구) 일본 제18은행군산지점 - (구) 군산세관 -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코스로 구성됐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s://gsnightculture.com/> 확인할 수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불가사리 재활용해 친환경 제품 만든다

군산시-스타스테크-군산시어촌계협의회, 협약 체결

군산시가 폐기처리 되는 불가사리의 재활용을 위해 (주) 스타스테크, 군산시어촌계협의회와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지난 9일 (주)스타스테크 양승찬 대표이사와 심명수 군산시어촌계협의회장, 신원식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해양폐기물인 불가사리를 재활용하는데 상호 협력 교류함으로써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데 의의가 있다.

(주)스타스테크는 소각, 폐기해야 할 해양 폐기물인 불가사리를 새로운 소재로 전환시켜 판매하는 친환경 스타트업체이다.

현재는 불가사리를 분해해 친환경 제설제와 클라켄 화장품 원료 그리고 친환경 액상 복합비료로 재생산하고 있다. 2018년에 설립된 (주)스타스테크는 매년 급성장하여 우수조달기업 조달청장 표창 및 중소벤처기업부 아기 유니콘200에 선정되는 등 성과를 인정 받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특히 불가사리로 만든 친환경 제설제는 기존 제설제와 비교해 도로, 차량 등의 부식률을 낮추고 주변 식물 피해 등도 낮추는 등 환경친화적인 장점이다.

이번 협약으로 군산시와 군산시어촌계는 불가사리 구제 이후 폐기처리 대신 불가사리 일부를 (주)스타스테크에 제공하며, (주)스타스테크는 불가사리를 활용하여 생산한 친환경 제설제를 군산시에 일정 기부하기로 하는 등 좋은 일에 참여하고자 뜻을 모았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 협약을 계기로 지속적인 협력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4기 체력증진교실 참가자 모집

스트레칭·서킷트레이닝·유산소운동·근력운동 등

익산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운영하는 체력증진교실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팔봉 종합운동장 내 익산체력인증센터에서 19~64세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체력증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체력증진교실은 참가자들의 근력·체력 증진과 체중 감량을 위해 기초스트레칭, 서킷트레이닝, 유산소운동, 근력운동 등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이 끝나면 체력 측정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해 스스로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4기 체력증진교실은 직장인 등 낮 시간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야간반으로 운영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달 2일부터 12일까지 익산체력인증센터(063-838-8983)로 신청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금연구역 확대... 17일부터 시행

교육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군산시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존 금연구역은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이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10m에서 30m로 확대된다.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

부터 3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추가된다.

또한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잘대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금연구역은 이전과 같이 유지된다.

만약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무더위 쉼터

지정 경로당 현장 점검

정현을 익산시장이 폭염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무더위쉼터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익산시는 9일 정현을 시장이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3곳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시설물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한 경로당은 부송동에 위치한 삼성아파트 경로당과 삼기면 채산경로당, 낭산면 한기경로당으로 지난 집중호우 등으로 긴급 피해가 발생한 시설이다.

정현을 시장은 "폭염으로 인한 운영질한 예방을 위해 낮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경로당 등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 운영·관리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12월부터 업무추진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군산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및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붕괴 사고 등이 발생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법제화 되었으며, 군산시도 의무설치 지자체로 지정되면서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건축 분야의 기술적 사항 검토 및 현장 점검 등을 수행하게 되며, △건축공사감리에 대한 관리 감독 △건축공사현장 안전점검 및 특별점검(해빙기, 우기 등) △기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진행한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센터장과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센터장은 군산시 건축경관과장이 겸임하며, 전문인력인 건축사 1명을 우선 채용하여 8월 12일부터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 전문인력인 건축구조전문가도 추가 채용하여 내실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베트남 계절근로자 공급 '효과 톡톡'

하반기 계절근로자 114명 입국... 18개 농가 배치

안정적 농업 인력 확보... 약 43억 농가소득 창출



익산시의 베트남 계절근로자 인력 지원 사업이 농업인의 큰 호응을 얻으며 농촌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시는 베트남 계절근로자 공급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업 인력을 확보하고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익산시는 지난해 2월 베트남 아이슈현과 계절근로자 파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계절근로자를 지역 농가에 투입하고 있다.

지난해 111명을 시작으로 올해는 지난 4월부터 104명이 입국해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아

울러 인력 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이 가능해지면서 약 43억 원의 농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9일에는 하반기 근로자 114명이 입국해 18개 농가에서 90일간 농업 근로를 진행한다. 특히 이날 아이슈현 부처 공무원 2명이 함께 익산을 방문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익산시의 업무 현황을 견학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고 농촌 지역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아이슈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고용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업무협약을 통한 베트남 계절근로자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근로자를 선발해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의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